

고대·중세 한국어 수량 표현에 대한 연구

이 용 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고대 한국어 시기 이두문에 사용된 수량 표현 구성을 계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공시적인 특징을 제시하고, 후기 중세 한국어의 수량 표현과 어떠한 통시적 연속성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의 수량 표현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는 주로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 한글 문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한국어는 기원적으로 분류사가 없는 언어에서 점차 분류사가 있는 언어로 변화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수량 표현의 어순에 있어서도 ‘수량사-명사(Quantifier-Noun)’ 구성에서 ‘명사-수량사(N-Q)’ 구성으로 변화하였다는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가 기원적으로 분류사가 없는 언어였다는 점, 그리고 ‘수량사-명사(N-O)’ 구성에서 ‘명사-수량사(N-Q)’ 구성으로 수량 표현의 어순이 변화하였다는 것에 점에 대해, 고대 한국어 이두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 분류사가 없었고, 수량 표현 구성도 수량사-명사(Quantifier-Noun) 구성이 자연스러운 어순이었다면, 고대 한국어 문헌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대 한국어 이두문을 살펴본 결과, 이 시기에 다양한 유형의 수량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 ㄱ. 穀三百五十餘石 麻三百卅餘過, 水[鐵], 雜鐵合四百餘斤乙 集乎^ㄱ <无垢淨光塔重修記>
- ㄴ. 釋元 納 祿羅繡袂服子 一 寺依止(僧)□ 一 ■納 錦帛 一 骨香 一 封 小石塔 十二 <无垢淨光塔重修記>
- ㄷ. 二 青衣童子 灌頂針 捧弥 <華嚴經寫經造成紀>
- ㄸ. 經心 內中 一 收 舍利 入內如 <華嚴經寫經造成紀>

(1)의 수량 표현은 각각 ‘명사-수량사-분류사(Noun-Quantifier-Classifer)’, ‘명사-수량사(N-Q)’, ‘수량사-명사(Q-N)’, ‘수량사-분류사-명사(Q-CL-N)’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고대 한국어 시기에 다양한 유형의 수량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수량 표현 구성이 등장하는 맥락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사-수량사-분류사(N-Q-CL)’ 구성과 ‘명사-수량사(N-Q)’ 구성은 주로 공양품의 구체적인 수량을 적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수량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수량사-(분류사)’가 후행한다는 기존의 논의(우형식 2000, 채완 1983)에 부합하는 것이다. ‘수량사-명사(Q-N)’ 구성은 주로 명사가 주체가 되거나 주체가 되는 환경에서 나타났다. 이 역시 후행하는 요소에 의미적인 핵이 있다는 후핵 언어인 한국어의 특징(채완 1983: 31, 신호철 외 2009 참조)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한국어 시기에 이처럼 다양한 수량 표현 구성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의 수량 표현 구성도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수량 표현을 살펴본 논의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한문 원문의 어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등을 따져본다. 또한 자료를 확장하여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분류사가 존재했으며, 다양한 어순의 수량 표현이 가능했음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어 수량 표현에 대한 새로운 국어사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keyword): 고대 한국어, 후기 중세 한국어, 이두문, 수량 표현, 분류사, 어순